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와안베스틸
강남 청담동 청담빌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와안인터내셔널
부산시 사상구 경정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ING FUTURE
[주] 동원스틸텍스주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Vol. **92**
2026. 07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조협회 오종환 부회장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조정부

부산체육 DNA
바다 위에 세운 스포츠 도시, 부산



CONTENTS


Instagram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9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7 Vol. 92



열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i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오종환 부회장
08	금빛 훈련일지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
12	부산체육을 잇다 사하구체육회
16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조정부

20	Sports is Busan - 2026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 제21회 여성체육대회
24	스포츠&테크놀로지 스포츠의 경계는 어디까지 넓어질까? VR이 그리는 새로운 스포츠의 미래
28	스포츠&웰니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30	부산체육 DNA 바다 위에 세운 스포츠 도시, 부산

34	스포츠 기자단 -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 광안리 2026 수영구민 SUP 대회
38	종목 소개 조정
42	스포츠&컬처 전시 <디어 바스켓볼 인 부산>

44	BSC 뉴스 민선9기 부산광역시장 당선인 초청 부산체육인 간담회
46	회원단체 소식
50	센터 info
52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4	부산체육 퀴즈

모두에게 열려있는 체조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오종환** 부회장

체조 선수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조협회의 든든한 운영자로 역할을 넓혀가며 누구나 체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오종환 부회장. 그는 지난 5월 개최된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의 체조 선수와 지도자 대부분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체조 현장 곳곳에서 맹활약하는 덕분이다.

선수에서 협회 부회장으로, 체조와 함께한 40여 년의 시간

오종환 부회장은 하루 두 번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오전에는 현직 교육자로서 온천초등학교에 출근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생활을 지도하고, 오후가 되면 부산아시아드체조체육관으로 다시 출근해 부산광역시체조협회 부회장으로서 협회 운영에 집중한다. 지난 2010년,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총무이사직을 맡으며 시작된 남다른 일상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체조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성북초등학교에 막 체조부가 창단한 참이었거든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교 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가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잘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중고교를 거쳐 대학,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도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

다. 그러다 지금처럼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1999년 체육교육에 발을 들인 그는 당시 재직했던 중앙초등학교 체조부를 최강으로 성장시키며 다른 학교에 스카우트되는 단계에 이른다. 2012년 온천초등학교 기계체조부(남자) 창단, 2020년 여고초등학교 체조부(여자) 창단 또한 그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 지금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5월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종목에서 무려 네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조명받은 조예성 선수의 스승, 류재화 지도자 역시 그의 제자 중 하나다. 제자들이 체조계 새싹들을 키우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체조협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자로서 그에게 큰 기쁨이고 보람이다.

“부산 소재 학교에서 체조를 가르치는 지도자 대부분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입니다. 좋은 지도자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한 마음이 들지요. 저는 선수 생활도 해봤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깐 이들이 가진 생각이나 고민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조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 업무에 잘 반영해서 안팎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란 뜻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체조협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등극한 부산광역시체조협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체조협회 가운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협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는가 하면, 타 시도 협회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아예 자매결연이나 협약 형태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탄탄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일 터다.

“협회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장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부산만 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습니다. 이곳 체조체육관이 1984년부터 운영 중인데, 전국에서 체조체육관을 운영하는 건 부산이 유일하거든요. 타지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훈련합니다. 체육관이 따로 운영되면 평일, 주말 언제든 필요할 때 훈련할 수 있고 학생들 외 일반 실업팀 선수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펜트, 멘티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학선 선수도 이곳에서 훈련하는 아이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환경인 거죠.”

최근 협회에서는 대중에게 체조를 알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체조에 재능이 있는 미래 꿈나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청소년 체육교실, 방학 중 즐거운 체조클럽, 체조영재선수단, K짐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꿈꾸는 미래도 여기에 맞닿아있다. 현재까지는 선수 대부분이 학교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젠가 각 체조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대회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이 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재가 계속 유입되고 체

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학교에서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회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선수 수급 방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꼭 협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시설을 열어주고요. 체조가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이 아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오종환 부회장에게 뜻깊은 소식이 찾아왔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초등학교 체조 육성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표시일 테다. 올해 2월 수상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체육 부문 표창을 받았다. 앞으로 정년까지 2년, 그는 남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자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도전했던 시간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체육과 체조문화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협회 업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해야죠.”

현장의 교육자로 살아오는 동안 그는 크고 작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를 성장시켰다.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과 기술 전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야로 본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현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성장 그 자체에 목표를 두게 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즐겁게 경기에 참여



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워가길 바란다. 도전과 성취를 경험하며 자신감도 키워가길 바란다. 젊은 시절, 메달을 따야만 아이들이 고생에 대한 보답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교육관이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 출근하면 수업 시작 전 30분간 전교생에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줍니다. 줄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훌라후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루 30분은 운동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더 밝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랙 위를 질주하는 힘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

스포원파크에 위치한 경륜경기장 트랙 위로 오토바이를 활용한 페이스 훈련이 한창이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순식간에 속도를 밀어붙이는 선수들 뒤로, 동료들의 “가자!” “더 붙어!” 같은 짧은 외침이 이어진다.

서로를 향한 격려 속에서 활기가 넘치는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을 찾았다.



단거리 종목에 강한 사이클팀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의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시와 협약을 통해 시청 소속 사이클팀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팀 소속 선수는 남자선수 3명, 여자선수 4명, 장애인선수 2명을 포함해 총 9명. 그간 국내 주요 사이클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며 값진 메달을 획득해온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실업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은 단거리 종목에 특화된 팀입니다. 경륜, 스프린트, 스크래치 같은 종목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거리, 중·장거리 종목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별화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종목 선수라면 한 번쯤 입단을 꿈꾸는 팀이죠.”

팀 훈련은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원파크 경륜경기장에서 이뤄진다. 김치범 감독에게는 인생의 한 장면이 기록된 장소다. 지난 2002년,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남자 단체 스프린트 종목)로 출전한 그는 바로 이곳에서 은메달을 땀다. 후배 선수들을 양성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다.

“3년 전 선수로서의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감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수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 선수의 장점에 집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두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선수별 맞춤형 훈련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 경기장 위로 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10초 후, 미리 맞춰보더라도 한 듯 동시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체화하도록 마련한 스타트 머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풍경이다.

“버튼을 누르면 10초가 카운트됩니다. 대회 때와 동일한 세팅입니다. 단거리 종목은 특히 출발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실수로 출발 시점보다 빨리 나가면 브레이크에 걸리기 때문에 시간 감각을 몸으로 익혀야 해요.”

김치범 감독의 후배이자 든든한 파트너인 전창훈 코치의 설명이다. 그는 팀 특성을 반영해 트랙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기술훈련과 체력훈련은 기본, 금요일에는 윈드업(wind-up) 훈련과 롤러 훈련을 통해 순간 가속 능력과 페달링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통이다. 선수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훈련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수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순발력은 좋은데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는 선수, 반대로 스타트는 좀 느린데 후반에 스피드를 올리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자기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선수들이 개인 기록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사이클대회 우승 석권! 전국체전 금메달을 향해!

최근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은 부산과 양양을 오가며 대회에 연이어 출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2026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여자 단체 팀 스프린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덕분에 선수들은 향후 1년간, 같은 종목 출전 시 챔피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경기 마지막 날엔 김하은 선수가 경륜 종목에서 우승하며 코리아챔프에 올랐다.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현재 선수들은 다가올 ‘8.15 경축 2026 양양 국제 사이클대회’ 준비에 여념 없다.

- “두 대회가 거의 맞붙어 있어서 양양에 남아 훈련을 이어볼까 했지만, 평소 훈련하는 이곳 시설이 안정적이거든요. 환경도 좋고요. 그래서 경기장을 오가며 훈련 중입니다. 대회가 코앞이라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선수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인 선수들을 바라보는 김치범 감독과 전창훈 코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다가올 전국체전까지 체력과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치지 않아야 그동안 훈련

했던 것들을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위험을 수반하는 종목이기에 두 지도자는 선수들이 사이클에서 내리기 전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스포 원파크 경륜경기장은 트랙이 아스콘으로 조성돼 있어서 노면 충격이 덜 하긴 하지만, 앞에서 넘어지면 뒤따르는 선수들까지 단체로 충돌할 위험이 따르기에 최근엔 무전기를 도입해 위험을 예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입니다. 한 번 부상을 입으면 심신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사이클 종목은 선수와 자전거가 한 몸이 되어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에게 항상 장비를 살피라는 이야길 많이 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 정서울 선수

올해로 사이클 14년 차에 접어든 정서울 선수는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선수다. 주 종목은 1Lap. 경륜경기장 트랙 한 바퀴를 단위로 순위를 겨루는 경기다. 친오빠가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클에 입문하게 된 그는 지난 2023년 부산시설공단 사이클팀으로 이적하며 꾸준히 실력을 늘려왔다. 지난해에는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7회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좌우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결과다.

- “슬럼프에 빠진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적이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

이 깊었죠.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팀을 옮기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아졌고 2024년 전남 나주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면서 지금은 슬럼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 김하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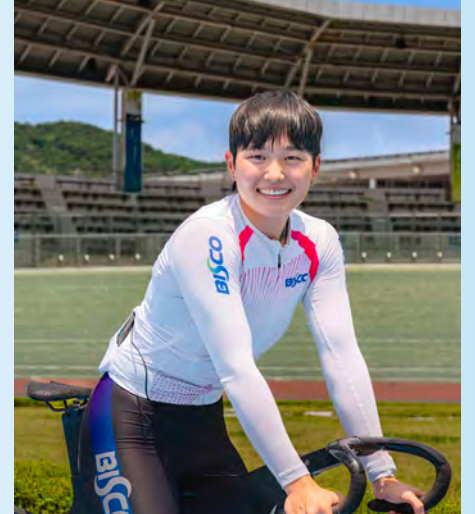
지난해 전국체전에 출전해 경륜, 스프린트, 단체 스프린트 종목 3관왕을 석권한 김하은 선수는 사이클계가 주목하는 단거리 전문 선수다. 이미 국가대표 선수로서 2023년 개최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여자 단체 스프린트)을 획득했던 그는 올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이다. 남다른 재능으로 어려서부터 특별 코스를 밟아왔을 것 같은 그가 사이클에 발을 들인 건 오히려 우연에 가깝다. 중학교 체육시간 수행평가였던 50m 달리기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의 눈에 들어 선수 제안을 받은 것이다.

- “체육 선생님이 사이클 감독님이셨거든요. 저한테서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치고 나가는 힘이 좋다는 이야길 많이 듣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속도를 올리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자기 주도적인 훈련 모습이 저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빠른 판단력과 날렵한 움직임이 강점! - 강서준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클 선수를 꿈꿔 일찌감치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을 정도로 자신의 꿈이 확고했던 강서준 선수. 사이클 경력 14년 차에 접어들기까지 그는 숏한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하며 경륜 유망주로 떠올랐다. 특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은 국내 경륜 종목 역사상 17년 만의 아시안게임 메달인 만큼 의미가 컸다. 하지만 그가 꼽는 가장 인상적인 대회는 2023년 출전한 전국체전. 당시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굳은 정신력으로 경륜 종목 금메달을 수상한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 탁월한 순간 판단력으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닮고 싶은 본보기가 된다.

- “출전하는 경기마다 상황도, 선수들도 달라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경기가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결국 매 순간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최선이라 생각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도 좋은 판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저속에서 고속으로 순식간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살리는 훈련이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체육’을 최우선에 둔 열정이 맺은 결실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체육회는 이영수 회장의 리더십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지도자들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다대포 해양캠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부산시민체육대축전 태권도 종목 3연패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Q 사하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하구체육회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대회 등을 운영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 생활체육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2016년 통합 사하구체육회가 창립되었으며, 2021년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며 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이영수 회장님을 비롯해 배대기 사무국장, 부회장 8명, 이사 23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진과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8개 회원종목단체, 284개 클럽, 12,953명의 동호인이 사하구체육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사하구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대포해수욕장을 활용한 해양캠프는 사하구를 대표하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의 해양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의 해양캠프는 관내 거주 3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보트, 서핑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상당합니다. 참가자 인원 확충, 기간 연장 등의 요청 사항이 끊이지 않아 해양캠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요에 맞춰 재고할 계획입니다.





Q 사하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회원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28개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대표 단체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사하구태권도협회입니다. 사하구태권도협회는 55개 클럽, 4,14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제 우승을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며 사하구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다른 구의 견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 볼링,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의 단체가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사하구체육회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사하구체육회의 가장 큰 자량은 이영수 회장님의 리더십입니다. 무엇보다 ‘체육’을 우선시하는 회장님을 본받아 생활체육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가 하나 되어 화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민선 2기 회장 취임 이후 회원종목단체와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화합을 이끌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높은 참여 의식으로 구 대회는 물론이고 전국 대회에도 대부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계신 회장님

덕분에 회원종목단체와 체육회 임원들 모두가 협력하여 지역체육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단체부문’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주관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서 도시형 체육회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하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활동에 대한 점검이 있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사하구체육회는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제’ 종합우승,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제’ 질서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Q 사하구체육회가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체육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보다 많은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체육회 회장 이영수**입니다.

저는 2023년 제4대 사하구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민선 2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기 전,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레슬링을 했습니다. 이후 양정모 선수의 스승인 오정룡 감독이 동아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종목 활성화와 후배 양성에 힘을 보탰었죠. 운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하구체육회 회장직도 권유받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체육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체육회 모임 등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발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제에서 사하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순간입니다. 당시 태권도 종목이 종합우승을 견인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

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월등한 실력으로 시합을 펼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이 종합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우승은 태권도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종목단체 임원진과 선수단, 체육회 임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기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하구체육회는 사하구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 화합, 현장 중심’이라는 운영 방침 아래 회원종목단체와 체육인들이 서로 존중하는 환경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사하구체육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의 사하구체육회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저 역시 건강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Q 구민과 회원단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하구체육회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문화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사하구체육회를 믿고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명의 선수로 이룬 기적, 소년체전 금메달 전원 달성

부산체육중학교 조정부

세 명의 선수로 구성된 부산체중 조정부가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 보여준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싱글스컬 신이린, 더블스컬 송지호·최수희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따낸 것은 지도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같은 색 메달이라 더 고마운 마음

부산체중 조정부를 이끌고 있는 선유선 지도자는 5월 소년체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

“세 명 다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메달 색깔이 같다는 점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부 선수가 3학년 세 명밖에 없다 보니, 한 사람이라도 다른 메달이었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네요.”

선유선 지도자는 더블스컬 송지호·최수희 선수도 너무 대견하고 고맙지만, 싱글스컬 신이린 선수에게는 좀 더 특별한 감정이 든다. 신이린 선수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체중으로 전학해 조정에 입문했다. 소년체전이 열렸던 5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조정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금메달을 딴 것이다.

신이린 선수가 운동을 가장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신 선수의 손은 노를 저으면서 생기는 마찰에 더 익숙하지 않아서, 손바닥에 물집과 상처가 가득했다. 선유선 지도자는 신이린 선수가 아파도 참고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 선수의 손바닥을 사진으로 기록해두었다.



강한 정신력의 지도자와 선수들

부산체중 여자 조정부는 2023년 창단했다. 훈련은 부산 강서구 조정경기장에서 부산체고와 대부분 함께 하기 때문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훈련을 견뎌내는데 이는 앞으로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했어요. 반복되는 부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교내 조정부가 창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부상이나 심리적 불안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섬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도 조정 지도자를 하고 있고, 자녀 중 한 명이 조정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요.”

조정 중등부 경기는 선수들의 체력 등을 고려해 2km가 아닌 1km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등부 선수는 경기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유는 아직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등부와는 달리 힘 조절을 잘 하지 못해 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정 선수는 신장이 크면 기록에 좀 더 유리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우 신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정신력이 아주 뛰어나요. 저도 선수 시절에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는 스타일이었는데 지호, 수희, 이린이라도 승부욕과 인내심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수상 위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력, 인성을 두루 갖춘 선수 양성

현재 부산체중 조정부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를 준비 중이다. 해당 대회에서 더블스컬 선수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싱글스컬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새 선수를 영입해 더블스컬 조를 만들어 함께 할 예정이다.

‘인성’과 ‘배려’는 선유선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정 선수의 덕목이다. 조정은 한 명이라도 튀려는 스타 플레이어라면 절대로 기록이 좋을 수가 없다고.

“좋은 선수는 배를 잘 나가게 하지만, 훌륭한 선수는 배와 동료를 잘 나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의젓한 지효, 중재 역할을 잘하는 현명한 수희, 행복한 웃음을 주는 분위기 메이커 이린이가 더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선수 발굴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WINTERLEBATEM MINI INTERVIEW

윤강 교장

부산체육중학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특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체육 특성화 중학교입니다. 단기간 성적 위주의 팀 운영보다는 성장단계에 맞는 기초·전문체력 및 기술 훈련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독교사 및 지도자가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속도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및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 부산체육중학교 학생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정 종목에 출전한 세 선수 덕분에 우리 학교는 개교 이후 최고의 조정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서 흔들림 없이 노를 맞춰온 아이들의 노력과 성장 과정까지 포함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조정은 종목 특성상 혼자 잘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기가 아닙니다. 동료와 함께 맞춰가고 성장해 나가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선한 리더십을 갖춘 체육 인재로 성장해 나갈 바랍니다.

**송지효 선수 (더블스컬·주장)**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2024년 부산체중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종목을 정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조정을 잘 할 것 같다고 적극 권유해 주셔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소년체전 준비를 열심히 하던 중에 독감에 걸렸어요. 혹시나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될까 봐 약을 전혀 먹지 않아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체력도 많이 저하되어서 좀 힘들었고요. 제 강점은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가는 승부욕이에요. 이번 소년체전도 금메달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더블스컬을 같이 하는 수희와 목표를 공유하고 많이 이야기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었어요. 내년에 부산체고에 진학할 계획이고, 전국체전 3연패가 가까운 목표입니다.

**최수희 선수 (더블스컬)**

저는 부산체중 2학년 때까지 양궁을 했어요. 양궁은 좋지만 저와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을 찾아 조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재미있고, 제게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더블스컬 선수이다 보니 같은 조인 지효와 합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소년체전을 준비할 때 지효와 호흡을 맞춰 하나처럼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집중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지효가 응원해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체력이 부족한 편이라 체력 향상에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소년체전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기록이 나와서 기쁩니다. 저는 정신력이 강한 편인데,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이 저를 앞서나가는 불안해하지 않고 제 페이스를 유지해서 가는데 집중합니다. 소년체전 금메달은 이뤘으니 다음 목표는 전국체전 금메달이고, 이후에 국가대표도 되고 싶습니다.

**신미린 선수 (싱글스컬)**

저는 작년 12월 말부터 조정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조정을 하기 전에는 전문적으로 운동한 적은 없지만, 근력이 좋다는 소리는 꽤 들었어요. 저는 싱글스컬이다 보니 오롯이 혼자서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도자님이 잘 할 수 있다고 많이 격려해주셔서 감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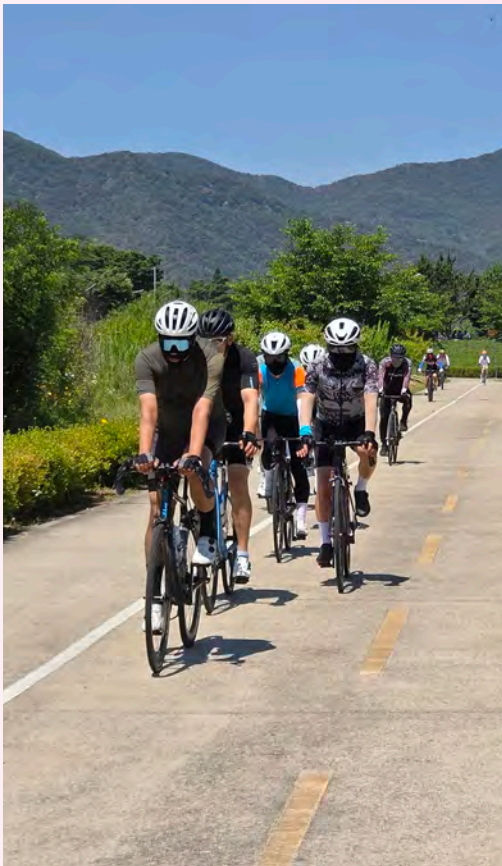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소년체전 직전 대회였던 제6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때 경기 도중 물에 빠졌던 거예요. 출발 신호 후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의욕이 넘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어요. 하지만 훈련할 때도 종종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배로 올라와 경기를 계속 진행했어요.

저는 하체 근력이 아주 좋은 편이라 조정 선수로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선수와 조를 이뤄 각자 한 개의 노로 진행하는 페어 종목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낙동강 자전거길 물들인 페달 행진

2026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지난 6월 13일, 화명생태공원 및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일원에서 ‘2026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사이클연맹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과 일반시민 1,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순위를 가리지 않는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1인 1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열린 개회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장에는 사이클연맹 장명안 회장, 부산광역시 김완상 체육국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가 진행되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개회식 후 출발선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라이딩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45km 일반코스과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24km 가족코스로 나뉘어 운영됐다. 먼저 45km 일반코스 참가자들이 화명생태공원을 출발해 물금취수장과 가야진사로 이어지는 구간을 달렸다. 800명의 참가자들은 가야진사를 반환점으로 낙동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이

어가며 대회를 즐겼다. 24km 가족코스에는 9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화명생태공원에서 호포다리 방면으로 페달을 밟은 뒤 물금취수장을 반환점으로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따라 주행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를 매개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생활체육의 가치를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

제21회 여성체육대회

지난 6월 27일, 부산 여성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여성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사직실내체육관 본구장 등 7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여성체육 동호인과 임원 총 1,30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21회차를 맞이한 ‘여성체육대회’는 부산 여성 동호인들에게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여성체육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등 주요 내빈과 개회식 참석 종목인 국학기공, 배구, 체조,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참가자들은 단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종목별 경기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경기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여성 동호인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국학기공, 배드민턴, 탁



구, 테니스, 볼링, 배구, 체조, 풋살 등 8개 생활체육 종목으로 운영됐으며,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전문체육 선수 미등록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대회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일부 종목은 심사기준에 따른 채점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은 종목별 우승, 준우승, 3위(장려)로 나누어 실시됐다. 지난해 신설된 풋살 종목은 올해도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6개 구·군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종목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기 운영이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회에 참가한 여성체육 동호인들은 여성체육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승패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종목별 경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진행됐다. 배구에서는 동래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연제구는 국학기공과 풋살에서 정상에 올랐다. 수영구는 탁구와 테니스(2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볼링은 해운대구, 체조는 북구, 테니스(1부)는 부산진구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여성 생활체육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여성체육대회’가 여성체육 동호인들의 건강한 활력과 구·군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부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도 여성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1회 여성체육대회 결과

구 분	1위	2위	3위	
국 학 기 공	연 제 구	강 서 구	동 구	서 구
배 구	동 래 구	북 구	금 정 구	부산진구
볼 링	해운대구	수 영 구	중 구	연 제 구
체 조	북 구	서 구	수 영 구	해운대구
탁 구	수 영 구	연 제 구	사 하 구	해운대구
테니스(1부)	부산진구	해운대구	북 구	동 래 구
테니스(2부)	수 영 구	영 도 구		
풋 살	연 제 구	동 래 구	기 장 군	강 서 구



스포츠의 경계는 어디까지 넓어질까?

VR이 그리는 새로운 스포츠의 미래

스포츠는 이제껏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 흙먼지가 날리던 운동장이 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장으로 바뀌었고, 심판의 눈에 의존하던 판정은 비디오 판독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VR 시대, 오락을 넘어 스포츠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상현실은 게임과 오락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예능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VR 체험은 실제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화면을 보며 즐기는 수준을 넘어 실제 운동과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고, 기록과 자세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은 오락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고 훈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크린골프다. 넓은 잔디 필드가 아닌 실내 스크린을 향해 스윙을 한다는 개념은 스크린골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실제 골프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생활체육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으며 동네 곳곳에는 스크린골프장이 생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초보자도 전문적인 장비나 넓은 골프장을

찾지 않아도 부담 없이 골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 참여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출처: 한국스포츠과학원 「SPORT INDUSTRY SI FOCUS」 2025년 10월호(제105호), 정인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VR 스포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연합뉴스, 배진남 '버추얼 태권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AI 코치와 함께하는 훈련

VR 스포츠는 체험을 넘어 전문 스포츠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도 VR 기술이 적극 활용되는데, 실제 경기와 유사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야구에서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을 가상으로 경험하며 타격 타이밍을 익히고, 축구에서는 다양한 경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공간 인지와 판단력을 기른다. 또한 스키와 스노보드 같은 동계 스포츠에서는 실제 코스를 미리 체험해 적응력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한다.

더하여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한 훈련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세를 교정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코치'가 대표적이

며, 국제대회 결승전처럼 긴장감 높은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해 심리 훈련

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훈련장이 현실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면

서 VR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훈련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태권도, 가상의 링에 오르다

VR 스포츠가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존 스포츠를 보조

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

운 종목과 경쟁 방식

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다. 구체적인 예



로 ‘버추얼 태권도’가 있다.

버추얼 태권도는 태권도 기술과 VR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로, 선수들은 VR 헤드셋과 동작 추적 센서를 착용하고 가상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친다. 상체와 무릎, 종아리에 부착된 모션 센서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화면에 반영하며 실제 태권도의 발차기와 공격 동작을 기반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신체 접촉 없이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은 줄이면서도 실제 경기에 버금가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경기 방식도 독특하다. 가상 경기장에서 60초간 승부가 펼쳐지며,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모두 소진시키거나 경기 종료 시 더 많은

게이지를 보유한 선수가 승리한다. 전통 스포츠의 기술 요소와 디지털 게임의 경쟁 구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인 셈이다.

버추얼 태권도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싱가포르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며 전 세계 스포츠계의 관심을 받았고, 2024년에는 제1회 버추얼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미래 스포츠의 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VR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는 데 있다. 최근 학교에서는 실감형 스포츠 교실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양궁, 볼링 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장이 좁거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에서도 여러 종목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도시·산간 지역처럼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VR 스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물리적 거리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VR 기술의 활용 범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균형감각 향상 훈련이나 가벼운 스포츠 활동을 가상환경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경기장이나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스포츠가 추구하는 도전과 경쟁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무대는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넓어지고, 전문 스포츠를 넘어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VR 스포츠는 더 많은 사람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뛰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퐁당!

뛰어들기 전에 잠깐만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뜨거운 여름철, 바다와 계곡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피서지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만큼 반가운 휴식의 순간도 없지만, 안전을 소홀히 하면 즐거운 추억은 순식간에 사고로 바뀔 수 있다. 물놀이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즐겁다. 올여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기본 수칙을 알아보자.

한눈에 보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 ☐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 ☐ 입수 시 다리부터 천천히 물에 적응시키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 장시간 물놀이 시 틈틈이 휴식 취하기
- ☐ 안전구역에서만 물놀이하기
- ☐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 ☐ 기상 악화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오기
- ☐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
- ☐ 구명조끼 착용법: 가슴 버클을 채우고 가슴조임줄을 당긴 뒤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배 양쪽에 걸기

갑작스러운 입수는 금물

물놀이는 더위를 식히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여름철 대표 여가 활동이지만,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 전에는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운 날씨에 달아오른 몸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신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심장과 먼 부위인 발과 다리부터 천천히 물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물놀이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물속에 있으면 더위가 덜 느껴져서 갈증을 잊기 쉽지만, 실제로는 땀을 흘리고 있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간다. 탈수를 막기 위해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구명조끼, 물놀이 필수 아이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계곡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심 변화와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와 이안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는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가슴 버클을 단단히 채운 뒤 가슴조임줄을 당겨 몸에 밀착시키고,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배 양쪽에 고정해야 물에 빠졌을 때 벗겨지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튜브나 구명조끼 등 물놀이 용품을 착용했다고 해서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물이 탁하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 폭포 주변처럼 물살이 강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의 물놀이, 내일도 웃으려면

물놀이 장소를 고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익숙한 곳이라도 날씨와 환경에 따라 위험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계곡은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이, 바다는 높은 파도나 강한 조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물놀이 전에는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나 지정된 안전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연을 즐기되 과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물놀이라면 보호자가 늘 신경을 써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깊은 물에 다가갈 수도 있으므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구명환이나 구명로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긴 나뭇가지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름철 물놀이는 더위를 식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추억은 안전이 함께할 때 더 오래 기억된다.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충분한 휴식과 기상 확인 같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올여름에는 시원함과 즐거움, 그리고 안전까지 함께 챙기는 물놀이를 즐겨보자.

바다 위에 세운 스포츠 도시, 부산

BUSAN

인류의 역사에서 바다는 오랫동안 생존을 위한 일터이자 교역의 통로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며 바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한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을 꼽자면 단연코 '부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부산은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서핑협회, 부산시서핑협회,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서핑협회, 부산시서핑협회, 부산시서핑협회, 부산시서핑협회, 부산시서핑협회

여름 휴양지에서 해양 스포츠 도시로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송도 등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닌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해수욕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다. 이처럼 천혜의 해안선과 도심이 완벽하게 결합한 인프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부산은 단순히 바다가 있는 관광 명소가 아닌 해양 스포츠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특정 마니아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던 해양 스포츠가 부산에서는 일상으로 들어와 정착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을 찾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는 무엇이며, 각각의 해양 스포츠를 어디에서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보자.

SUP의 메카,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안리해수욕장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SUP(Stand Up Paddleboard)의 중심지다.

서핑과 카약이 접목된 SUP는 단어 그대로 '서서 타는 보드'로, 패들보드 위에서 노를 저어 움직이는 스포츠다. 패들보드에 올라가는 법과 노 젓는 법 같은 기본적인 교육만으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은 파도가 잔잔해 SUP를 즐기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넓은 백사장에는 '광안리 SUP Zone'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구민 대회, 국제 대회 등 각종 SUP 대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 및 운영되고 있다. 특히 LED 조명을 장착한 패들보드를 타고 화려한 조명을 밝힌 광안대교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SUP 야간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SUP 문화를 한층 발전시켰다.

광안리는 SUP를 위한 해수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안리해수욕장이 위치한 수영구는 '광안리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사업'을 추진, 지금도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구는 해당 사업으로 지난 2025년에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문화관광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안리해변&SUP존'은 2021년 한국관광공사 주관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에 이어



2023년 ‘부산 웰니스 관광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2023 APP WORLD TOUR BUSAN SUP OPEN)’ 선정, 2023~2026년 ‘한국 관광 100선’ 연속 선정 등으로 SUP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색 카약 명소, 수영강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한 수영강에서는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카약은 작은 배에 앉아 양날 패들을 좌우로 번갈아 저어 나아가는 스포츠다. 참고로 카약과 비슷한 카누는 배 덮개 유무, 승선 방법 등이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패들이다. 카누는 패들 한쪽에만 날이 있다. 그래서 카누보다 카약이 비교적 초보자가 익히기 쉬우며 속도감도 느낄 수 있다.

수영강에서는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주관으로 LED 카약을 타고 수영강 야경을 감상하는 ‘별이 빛나는 수영강(별빛강) LED 카약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해양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 2025년에는 9월에 진행되어 해양 스포츠는 여름에만 즐기는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서핑의 성지, 송정해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송정해수욕장은 남서풍과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심 덕분에 사계절 내내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핑은 서프보드를 이용해 파도를 타는 스포츠로, 파도 움직임에 맞춰 턴, 컷백, 에어리얼 등 각종 묘기를 부릴 수도 있다.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해양 스포츠 저변 확대와 서핑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과 21일에도 ‘제17회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선수, 동호인 등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짧고 민첩한 보드를 사용하는 ‘쇼트보드’, 길고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 ‘롱보드’,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등의 경기가 펼쳐졌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는 ‘송정서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송정서핑학교는 세계적인 서핑대회를 휩쓴 강사진들이 입문자, 중급자 등에 맞춘 강습을 제공해 국내 서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역시 파도가 좋고 수심이 깊지 않아 서핑을 즐기기에 좋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카이트서핑(카이트보딩)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카이트서핑은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이 조



합된 형태로, 카이트(연)를 사용하여 ‘바람’을 동력으로 수상을 활주하는 스포츠다.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빙의 떠오르는 명소, 송도해수욕장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이자 최초의 근대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은 태풍 등의 피해로 잠시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부터 연안정비사업 등을 진행, 이후 케이블카가 복원되며 국제적인 해양 휴양지로 발돋움하였다. 여기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한 서구는 ‘2026년 지역별 특화 해양 레포츠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송도해수욕장은 해양 레포츠 명소로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이에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등의 종목을 기간 한정 무료로 체험하는 ‘송도마린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는 2013년 개관 이후 부산 최고 수준의 잠수전용시설 등을 증축하여 2019년에 재개관하였다. 국비·시비·구비 50억 원이 투입된 증축 건물 중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전용시설은 사계절 이용 가능해 송도해수욕장이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빙 명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빙은 앞서 소개한 스포츠와 달리 수중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스킨스쿠버는 산소통과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반면, 프리다이빙은 호흡 장비 없이 숨을 참고 잠수 활동을 한다. 해양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스포츠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산

지금까지 부산이 이룬 성과는 해양 스포츠의 대중화와 기반 조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해수욕장이 더 이상 여름 한철 더위를 식히는 곳이 아닌 ‘스포츠의 장’이 되었으며, 나아가 ‘사계절 내내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산’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부산이 해양 스포츠 도시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 해양이 존재할 때 해양 스포츠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혁신적인 정책, 시민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부산은 ‘해양 스포츠 도시’를 넘어 ‘해양 스포츠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비바람 속 펼쳐진 치열한 암벽 승부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류경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전국 클라이머들의 뜨거운 축제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말을 맞아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과 선수들의 열정은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뜨거웠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이 주관하여 개최된 대규모 생활체육 축제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루트파인더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장이 되었다.

대회 첫째 날인 20일 오전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거센 빗줄기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야외 경기장 특성상 돌풍과 습한 환경이 선수들의 손 악력을 떨어뜨리고 홀드를 미끄럽게 만드는 등 경기 운영에 걸림돌이 될 법한 변수가 속출했다. 그러나 코트 위에 선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바람 속에서도 홀드를 단단히 움켜쥔 채 등반을 이어가며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줬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잦아들고 하늘도 개어 경기장 분위기도 활기를 되찾았다.

첫날 치러진 학생부 리드 경기에는 초등부(저학년)부터 중등부까지 총 102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성인 못지않은 과감한 등반을 선보였다. 경기장 아래에서 자녀들의 등반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한 동작 한 동작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어 진행된 일반부 스피드 경기에는 남녀 3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순식간에 승부를 가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관중들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대회 둘째 날인 21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날 메인 종목은 일반부 볼더링 경기로, 중학생 이상 남녀 선수 118명이 참가해 다양한 과제에 도전하며 기량을 겨뤘다. 볼더링은 로프 없이 제한 시간 안에 정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종목으로, 선수들은 루트를 분석하는 ‘인스펙션’ 단계부터 집중력을 발휘했다. 출제된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저마다의 전략과 기술을 선보인 점도 눈길

을 끌었다.

이날 경기의 승부는 일부 고난도 구간에서 갈렸다. 남자부에서는 첫 번째 코스부터 난도가 높은 동작이 이어지며 초반 탈락자가 잇따랐고, 여자부에서는 네 번째 코스가 가장 큰 변수가 됐다. 많은 선수들이 완등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도전을 마무리했지만, 실패 후에도 다시 초크를 바르고 벽에 오르는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지를 보여주어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경쟁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도 꾸며졌다. 양일간 경기장에서는 경품 추첨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관중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며 생활체육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겁게 체험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시작해 맑은 하늘 아래 마무리된 이번 부산시장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유소년 선수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클라이밍의 저변을 넓히는 무대가 됐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경기에 집중한 선수들의 열정은 대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바다 위에서 펼쳐진 화합의 물결

광안리 2026

수영구민 SUP 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승빈



지난 6월 27일 광안리 해변에서는 ‘광안리 2026 수영구민 SUP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3개월간 매주 주말 광안리 바다에 모여 함께 땀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주최·주관한 ‘광안리 2026 수영구민 SUP 대회’는 지역 주민들의 해양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구 10개 동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이 출전했다. 참가 자격은 수영구 거주민 또는 수영구 소재 직장 재직자로 제한됐으며, 동별 14명씩 총 140명의 구민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주말마다 SUP 이론 교육을 비롯해 패들링, 방향 전환, 실전 레이스 등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며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 현장에는 선수들을 비롯해 응원과 진행을 돕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 부녀회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경기장은 엄숙한 경쟁보다 참가자들의 웃음과 응원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됐다. 대회는 선수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식, Paddle for the Ocean 캠페인, 개인전 예선과 결승, 이벤트 게임, Big SUP 경기, 2인승 SUP 경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고, 늦더라도 끝까지 완주에 성공한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Big SUP 경기에서는 4명의 선수가 탄탄한 팀워크를 맞춰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경기를 펼쳤고, 2인승 SUP 경기에서는 서로의 호흡을 맞춰 패들을 저어 나가는 모습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벤트 경기에서는 선수와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뤄 함께 경기를 즐기며 승패를 넘어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며 “이벤트 경기에서 직접 참가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선수로 직접



참가해 레이스를 펼쳐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상은 개인전과 단체전(Big SUP, 2인승 SUP) 각 1~3위, 응원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개인전과 단체전, 이벤트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종합해 동별 종합 순위를 산정했다. 종합 우승은 지난해에 이어 광안1동이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고, 남천2동이 준우승, 망미1동이 3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참가자들의 환한 미소와 서로를 축하하는 박수가 이어졌다.

‘광안리 2026 수영구민 SUP 대회’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수영구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해양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고, 주민들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선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부녀회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SUP를 비롯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접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물살 위 새겨지는 리듬

‘물 위의 마라톤’ 조정

마라톤이 땅 위를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라면, 조정은 물 위에서 전력으로 노를 저으며 2km를 질주하는 경기다. 물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고,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보트의 균형과 속도가 흔들린다. 하지만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몰입감과 짜릿함이야말로 조정의 묘미라 할 수 있다.

조정의 역사

조정은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기원한 스포츠로, 당시 템스강을 중심으로 보트가 육상 교통수단보다 편리하게 이용되면서 점차 경기 종목으로 발전했다. 1715년 최초의 조정 경기인 ‘프로페셔널 스컬 경기’가 열린 기록이 남아있으며,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가 조정팀 창단의 효시로 언급된다. 1829년에는 대표적인 대학 스포츠 라이벌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최초의 조정 레이스를 펼쳐 약 2만 명의 관중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조정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며 국제적인 스포츠로 성장했다.

1892년 세계조정연맹(FISA)이 창설된 후 이듬해 이탈리아에서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조정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당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4개 종목이 처음 치러졌다. 이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

픽’에서 여자 경기가 처음 도입됐고,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경량급 종목이 추가되면서 경기 폭이 한층 확대됐다. 오늘날 조정은 하계 올림픽의 주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의 조정

우리나라에 조정이 소개된 시기는 1916년이다. 당시 일본인 유학생 3명이 배 한 척을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등학교)에 기증하면서 국내 최초의 조정팀이 생겼으나 실제 경기가 열리지는 못했다. 조정 경기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5년 경성전기, 철도국, 체신국,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등이 배를 도입해 한강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 이후 1940년부터 소규모 조정 대회가 열렸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1962년 ‘전국학생조정경기’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대한조정협회(KRA)가 창립됐다. 1964년에는 ‘제18회 도쿄 올림픽’에 처음으로 에이트 종목 대표팀이 출전했으며 1965년 FISA에 공식 가입했다. 197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팀이 창단되면서 현재는 약 90개 팀, 600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 조정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과를 살펴보면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25년 열린 ‘아시아 실내조정 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해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2025년에는 김세정 선수가 ‘세계장애인 조정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최초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한국 조정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조정의 규칙

조정은 배에 고정된 노를 사용해 2km 거리를 완주하는 경기로, ‘보트 레이스’ 또는 ‘레가타(Regatta)’라고 불린다. 수상 종목 중 유일하게

선수들이 배의 진행 방향을 등지고 앉아 노를 젓기 때문에 결승선도 뒤를 향한 채 통과한다. 배의 길이는 약 12~16m 정도이며 최종 기록은 뱃머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측정하는데, 접전일 경우 ‘포토 피니시(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순위를 판정하는 기술)’를 참고한다. 같은 레이스에서 두 번의 부정 출발이 있을 시 해당 팀 또는 개인은 실격 처리된다.

선수들이 목적지를 등진 채 경기를 펼치는 만큼, 경기 운영 시 선장 역할을 하는 콕스웨인(Coxswain, 이하 콕스)의 지시가 중요하다. 가장 인기가 많은 에이트 종목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조정협회, 올림픽 홈페이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계조정연맹

은 콕스 1명과 크루 8명으로 구성되며, 그 외 종목은 콕스의 탑승 여부에 따라 유타와 무타로 나뉜다. 콕스는 경기 중 유일하게 전방을 볼 수 있는 인물로, 배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선수들의 페이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콕스가 없는 배에서는 노를 젓는 선수 중 한 명의 발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은 방향타가 있어, 이 방향타를 이용해 배를 조종한다.

조정의 종목

조정 경기는 1인, 2인, 4인 또는 8인의 선수로 구성된 팀이 참가하여 도착한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조정은 노를 젓는 방식에 따라 ‘스컬링(Sculling)’과 ‘스위프 로잉(Sweep Rowing)’으로 구분된다. 스컬링은 한 선수가 양손으로 두 개의 노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스위프 로잉은 한 선수가 노 하나를 양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FISA에서 인정하는 조정 종목은 아래의 8개 종목이다. 특히 ‘에이트’는 콕스를 포함해 총 9명의 선수가 약 18m에 이르는 배에서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종목으로 조정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1인	2인		4인		8인
스컬링	싱글스컬	더블스컬		쿼드러플스컬		-
스위프 로잉	-	무타페어 (콕스 X)	유타페어 (콕스 O)	무타포어 (콕스 X)	유타포어 (콕스 O)	에이트 (콕스 O)



한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남녀 및 경량급을 포함해 총 24개 종목(남 14, 여 10)이, 올림픽에서는 14개 종목(남 8, 여 6)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경량급 종목인 라이트급 더블스컬이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며, 이를 대신 해 해변에서 진행되는 비치스프린트 솔로와 비치스프린트 더블스컬 종목이 도입될 예정이다. 비치스프린트는 해변에서 모래사장을 달리고, 바다에서 노를 저어 돌아오는 역동적인 해안 조정 경기로 지난 2024년 강원도 양양에서도 대회가 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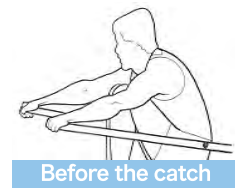
조정의 경기장

조정 경기는 인공 수로 혹은 강, 호수 등의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경기장 전체 길이는 최소 2,150m를 기준으로 하며, 레인 폭은 최소 12.5m, 최대 15m로 규정된다. 알바노 시스템에 따라 부표로 레인이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8개 부표 레인이 권장되지만 6개 레인도 무방하다. 경기장은 크게 스타트 존(Start Zone), 일반 코스(Course), 피니시 존(Finish Zone)으로 구성된다. 부표 간격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코스 구간에서는 10m 또는 12.5m 간격으로 설치되며, 스타트 존에서는 5m 또는 6.25m 간격으로 배치된다. 스타트 존은 출발선부터 100m 구간으로 설정되며, 피니시 라인 이후에는 보트가 안전하게 감속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최소 80m의 자유 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기준은 200m로 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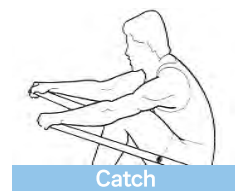


조정의 기술

노를 젓는 것은 로잉(Rowing)이라고 하며, 물 속에 들어가는 노의 끝 부분을 블레이드(Blade), 노를 저을 때 물 속으로 넣는 동작을 캐치(Catch)라고 한다. 물 밖으로 빼는 동작은 피니시(Finish)이며, 출발할 땐 “어텐션(Attention), 고(Go!)”와 같은 구령을 붙인다. 선수들은 슬라이딩 시트에 앉아 앞뒤로 움직이며 노를 젓는다.



1. 팔은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뻗는다.
2. 이때 몸(특히 가슴)은 자연스럽게 다리 가까이에 오게 된다.
3. 무릎의 각도는 90도 이하가 된다.
4. 블레이드(노)가 물속에 잠기기 직전 상황이다.



1. 몸의 각도는 ‘Before the catch’ 때와 같으며, 팔의 각도 또한 같다.
2. ‘Before the catch’ 때보다 시트만 앞으로 전진한 상태이다.
3. 블레이드를 물 속에 잠기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1. 다리 힘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처(발판)를 밀고 있는 단계이다.
2. 등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마지막 단계는 주로 어깨와 팔로 끝낸다.
3. 팔은 그림에 나타난 위치에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4. 모든 힘을 블레이드에 전달시키기 위해 체중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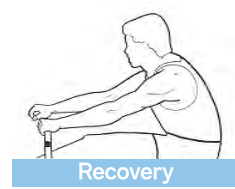


1. 어깨와 팔은 스트로크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한다.
2. 스트로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체중은 스컬(핸들) 뒤쪽에 유지해야 한다.
3. 핸들은 물 위로 나오도록 손으로 아래로 눌러준 뒤, 블레이드를 천천히 돌려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 Stroke(스트로크): 노를 한 번 젓는 동작



1. 손은 핸들만을 리드하되 계속적인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간다.
2. 초기에는 손만 뺀고(몸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 완전히 뻗은 후 다음 동작을 시작한다.
3. 보트의 스피드가 최고조인 단계이다.



1. 팔이 앞으로 뻗어지면 몸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당겨져 ‘Catch’ 때의 위치가 된다.
2. 팔이 뻗어지고 몸이 ‘Catch’ 때와 같은 포지션이 되면 다음 스트로크를 위해 시트도 같은 속도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3. 팔과 몸은 다음 단계(Catch)를 위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다시 그 시절 코트 속으로

전시 <디어 바스켓볼 인 부산>

한 시대를 풍미한 코트 위의 영웅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주황색 공의 궤적을 상상해 보자. 승부를 뒤바꾼 리바운드의 순간과 그물망을 가르는 파열음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청춘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던 농구 역사상 길이 남을 순간들을 담은 전시가 부산을 찾아왔다. 총 7개의 테마 존을 통해 코트 위 전설들이 흘린 땀방울과 영광의 순간을 감각적으로 조명한 전시로 안내한다.

더 어워즈: 영광의 증언

이번 부산 전시의 핵심 관람 포인트 중 하나는 코트 위 치열한 드라마를 증명하는 우승 트로피들이 가득 채워진 ‘더 어워즈 (THE AWARDS)’ 존이다. 공간을 가득 채운 트로피가 인상적인 이 공간은 농구계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1990년대 두 차례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 농구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왕조의 핵심 주역, 스카티 피펜(Scottie Pippen)의 소장품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컬

렉션 중 하나다. 마이클 조던의 최전성기를 함께한 파트너이자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꼽히는 그는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All-Defensive First Team)’에 선정되며 수비력을 인정받았다. 맞은편으로 ‘슈퍼맨’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폭발적인 덩크로 코트를 압도했던 드와이트 하워드(Dwight Howard)의 실착 저지 또한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코트 위 치열했던 영광의 순간이 고스란히 깃든 전시품들은 농구 팬들에게 깊은 향수를, 일반 관람객에게는 스포츠가 주는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



자료 제공: 이랜드뮤지엄



마이클 조던부터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NBA 전설들의 유산이 한자리에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의 후계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2000년대 미국프로농구(NBA)를 지배했던 전설, 고(故)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라는 뜻의 ‘블랙 맘바’로 불리던 그는 지독한 연습량과 강인한 승부욕으로 코트를 호령하며 농구 팬들의 영원한 우상으로 남았다. 타계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전 세계 농구 팬들

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실제 경기에 입고 뒀던 유니폼과 그의 철학이 담긴 시그니처 농구화가 공개되어 그의 생전 숨결을 고스란히 전한다. 여기에 마이클 조던이 챔피언십 우승 당시 밟았던 실제 농구 코트 바닥 조각, 압도적인 골밑 장악력으로 한 경기 100득점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윌트 체임벌린(Wilt Chamberlain)의 영구결번 헌정 저지까지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NBA 아이콘들의 미공개 소장품 120여 점이 공개돼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다.

전시명 디어 바스켓볼 인 부산
(DEAR BASKETBALL in Busan)

기간 2026.04.25(토) ~
2026.09.06(일)

장소 KT&G 상상마당 부산 5F 갤러리

그저 눈으로만 둘러보는 전시는 아쉽다. 유니폼 한 장, 신발 한 켤레에 숨겨진 밀도 높은 서사와 역사적 맥락을 알고 나면, 전시는 완전히 새롭게 읽히기 시작한다. 주말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월슨의 ‘에어리스 볼(Airless Ball)’ 3점 슛 체험존이 열려 직접 공을 만져보고 슛을 던져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디어 바스켓볼 인 부산>은 단순한 시각적 관람을 넘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코트로 돌아가는 감성적 시간여행이다. 서로의 추억을 꺼내 나누며 농구라는 문화로 교감하는 부산만의 특별한 여정이 여기서 시작된다.

민선9기 부산광역시시장 당선인 초청 부산체육인 간담회

부산체육 발전 방향 공유 및 체육 현장 의견 수렴 통해
부산체육-시장 협력 기반 강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6월 11일 부산광역시시장 당선인을 초청해 ‘민선9기 부산광역시시장 당선인 초청 부산체육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광역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구·군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체육회 임직원, 지도자 및 선수 등 부산 체육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선9기 시장과 부산체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과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안정적인 체육재정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한 체육 재정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양정모종합실내훈련장 일원에 선수 훈련과 숙박, 회복 기능을 연계한 ‘(가칭) 아시아드 선수촌’ 건립 필요성을 제시하며 부산을 글로벌 스포츠 전지훈련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항마리나를 시민 이용 중심의 공공적·공익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 해양수도 부산을 해양레저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해양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체육재정 확충과 체육 인프라 조성, 스포츠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선9기 시장과 체육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부산시장과 부산체육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자 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체육계가 제안한 정책 의견이 부산

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재정 지원, 부산 아시아드 선수촌 건립, 북항마리나의 공익적 활용 등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를 실현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체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중구체육회

제23회 중구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난 6월 21일(일) ‘제23회 중구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광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외 3개소에서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총 4개 종목 경기가 진행됐으며, 3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다는 평이다.



서구체육회

2026년 부산광역시 서구테니스협회장

클럽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6월 13일(토) 개최된 ‘2026 부산광역시 서구테니스협회장 클럽 테니스대회’에서 서구 지역을 대표하는 동호인 150명이 참가해 코트를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 경기는 은배부, 동배부, 신인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결과,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준 ‘장군산’ 클럽이 은배부와 동배부를 동시 석권하며 서구 최강 클럽의 면모를 입증했다. 신인부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라운’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24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6월 14일(일) 황령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24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질서 있는 운영과 참가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어우러지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래구체육회

제24회 동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제24회 동래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지난 6월 20일(토)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품새와 겨루기 등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태권도의 기본정신인 예의와 존중, 패어플레이를 실천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며 태권도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동구축구협회, 제43회 부산광역시장배 축구대회 준우승

동구축구협회는 지난 6월 7일(일)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열린 ‘제43회 부산광역시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부산시 16개 구·군 축구협회 대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동구축구협회 선수단은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연제구와의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 동구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으로서 축구 활성화와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도구체육회

제17회 부산광역시영도구

소프트테니스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일), 을숙도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제17회 부산광역시영도구 소프트테니스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영도구 관내 4개 클럽 소속 동호인 8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동호인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 선수들은 각 부문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클럽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프트테니스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남구체육회

제18회 부산광역시 남구축구협회

고·자문기 축구대회 개최

지난 6월 21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제18회 부산광역시 남구축구협회 고·자문기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박수영 국회의원과 남구 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2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굵은 날씨 속에서도 남구 축구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다졌다. 남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체육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북구체육회

2026 제14회 부산광역시 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일) 강서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2026 제14회 부산광역시 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북구 지역 여성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수준 높은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선보이며 배드민턴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피클볼협회장배 피클볼대회 개최

지난 6월14일(일) 부산광역시생활체육문화센터 2층 대체육관에서 ‘제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피클볼협회장배 피클볼대회’가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해운대구 갑 주진우 국회의원등을 포함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대회에 참가한 200여 명의 피클볼 동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기량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피클볼 동호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사하구체육회

제18회 사하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6월 6일(토) 강서체육관에서 ‘제18회 사하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는 사하구 탁구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대회는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모든 경기는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며, 사하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연제구체육회

2026년 제15회 연제구청장기축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6월 21일(일) 축구 동호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드 축구장에서 ‘제15회 연제구청장기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쳤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며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관내 1부에서는 오륙A, 관내 2부 상신현철, 60대부 1부 상신신석, 60대부 2부 한새B, 혼성부 원B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수영구체육회

2026 제2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 개최

지난 6월 21일(일) 수영구 스포츠클럽(민락동)에서 ‘2026 제2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가 개최됐다.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영사와 주요 내빈들의 축하 그리고 선수 대표 선서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은 “참가자들이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치며 서로 간의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교류 확대,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됐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운영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6월 13일(토)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사업의 일환으로 금정구 관내 11가정을 모집하여 부산 기장군 소재 롯데월드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출발 현장을 방문해 참가 가족들을 격려했으며, 참가 가족들은 다양한 어트랙션과 문화 체험을 즐기며 주5일제의 긍정적인 의미를 몸소 되새겼다. 금정구체육회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체육회

제21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6월 7일(일) 강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제21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됐다. 강서구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강서구체육회, 강서구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관내 동호인 7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매 경기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특히 셔틀콕이 오가는 치열한 랠리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클럽 간 돈독한 정과 화합을 나누었다. 대회 종합 성적은 우승 강서클럽, 준우승 조이클럽, 3위 명호클럽이 차지했으며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사상구체육회

2026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 운영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6월 14일(일) 부산 롯데월드에서 ‘2026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5일 근무·수업제에 따른 주말 여가시간을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총 28가정 89명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시설을 이용하며 가족 간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사상구체육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장군체육회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신축 사무국 개소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6월 19일(금) 신규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군수를 비롯해 체육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마련된 사무국은 기장군체육회의 업무 환경 개선과 지역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체육회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어르신 건강 증진, 청소년 체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2026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운영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부산 서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서구체육회와 협력하여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6월 9일(화)부터 7월 9일(목)까지 한 달간 진행된 배드민턴 강습으로 부산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됐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수업을 등록한 한 회원은 “집 가까운 곳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버로빅' 회원 모집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버로빅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실버로빅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즐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과 생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금 주 3회 운영되며, 수업은 오후 1시에 시작된다. 규칙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어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월 55,000원이다. (문의 051-365-7070)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제28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지난 6월 12일(금)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제28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배드민턴 경기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축전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참가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클럽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분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대축전은 큰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물 볼트 보강 공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6월 24일(수) 시설물 볼트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테니스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테니스장은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한 운동환경,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05 부산실내빙상장



제8회 부산광역시전국빙상동호인대회 개최

지난 6월 6일(토)부터 6월 7일(일)까지 이틀간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제8회 부산광역시전국빙상동호인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21개 빙상 동호인 클럽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부산 동호인 선수단은 남·여 청년부 MVP를 배출했으며 여자 계주 1위와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하며 부산 빙상 동호인의 강한 저력을 과시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생활체육 빙상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빙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06 신평장림체육관



안전사고 대응체계 교육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실습을 비롯해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년 리더스포츠클럽 ‘영재발굴·지역교류전’ 선정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6년 단체구기종목 리더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서 영재발굴 프로젝트와 지역교류전 지원 두 개의 유형 모두 선정되었다.

영재발굴 프로젝트는 아이스하키·배구·농구·축구 4개 종목을 대상으로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부산시 교육감배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유망주를 발굴하고, 체력측정으로 객관적인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교류전은 아이스하키를 중심으로 학교운동부, 민간클럽, 타지역 팀과의 합동훈련과 교류전을 여는 사업이다. 타지역 팀과의 합동훈련, 경기에서의 교류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늘리고 우수선수를 발굴한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앞으로 두 사업을 통해 숨은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 학교·민간클럽과의 교류를 늘려 단체 구기종목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발굴 영재를 전문선수반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전문선수반 ‘2026 전국 유소년 하모니 농구리그’ 본선 진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전문선수반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6일까지 경북 상주시 일대에서 열린 ‘2026 전국 유소년 하모니 농구리그’ 권역별 대회에 참가해 1승1패 조2위로 대회를 마무리하여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전국 유소년 하모니 농구리그는 전국 각 권역에서 예선을 치른 뒤 상위팀들이 챔피언십 본선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이번 권역별 대회에서 조2위를 기록하여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했다.

선수단은 8월에 열리는 챔피언십 본선을 목표로 현재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올 초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부산대표로 선발된 데 이어 이번 본선 진출까지 이어진 흐름을 바탕으로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전문선수반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대회 경험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꾸준히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부산에는 많은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륜, 스프린트 등 다양한 사이클 종목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 '2026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여자 단체팀 스프린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 ① 부산교통공사 ② 부산시설공단 ③ 부산환경공단

2

지난 6월 27일 광안리 해변에서는 '광안리 2026 수영구민 ○○○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들보드 위에서 노를 이용해 나아가는 이 종목은 지역주민들의 해양 스포츠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광안리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 스포츠로 꼽히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 ① 윈드서핑 ② 딩기요트 ③ SUP

3

이 종목은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기원한 스포츠로, 당시 템스강을 중심으로 보트가 육상 교통수단보다 편리하게 이용되면서 점차 경기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다 위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 ① 카누 ② 조정 ③ 카약

『부산체육』
제93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동의대학교 2. ③ 전자 퍼포먼스 추적 시스템(EPTS) 3. ① 양정모

당첨자

정*량(0768) 서*건(2855) 김*훈(1151) 안*신(0544) 김*주(7175)
김*경(7570) 박*희(9531) 김*정(1999) 도*찬(3229) 류*연(5525)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최근 ○○○○○○ 사이클팀은 부산과 양양을 오가며 대회에 연이어 출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2026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여자 단체팀 스프린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금빛 훈련일지> 10쪽

2
힌트

지난 6월 27일 광안리 해변에서는 '광안리 2026 수영구민 ○○○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3개월간 매주 주말 광안리 바다에 모여 함께 땀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스포츠 기자단> 37쪽

3
힌트

○○은 배에 고정된 노를 사용해 2km 거리를 완주하는 경기로, '보트 레이스' 또는 '레가타(Regatta)'라고 불린다. 수상 종목 중 유일하게 선수들이 배의 진행 방향을 등지고 앉아 노를 젓기 때문에 결승선도 뒤를 향한 채 통과한다.

<종목소개> 39쪽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7.15.(수) ~ 7.31.(금)

응모 방법

네이버 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93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폼 바로 가기

이벤트 응모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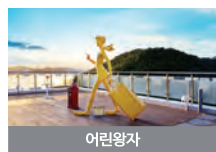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www.eunsan.co.kr

银山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됐다!됐다!잘 된다!더 잘 된다!



회장 양재생



글로벌 종합물류, 은산해운항공

OCEAN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EXPORT PACKING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 중량 / 벌크화물

전 화 : 051-441-9966 / 02-772-9966

팩 스 : 051-441-9969 / 02-773-9969

E-mail : info@eunsan.co.kr



양산터미널



신항만독산터미널



신항만화전터미널



신항만동동터미널



경인터미널



인천국제공항터미널



은산수출포장



은산로직스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The new GLE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 The new GLE 차량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대표번호 1688-2369(benz)
홈페이지 www.mbstar.co.kr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기장 051-901-2390 부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147, B1

민증중고차

사적 051-775-9820 부산 연제구 경자장로 21
울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충로 74번길 19(삼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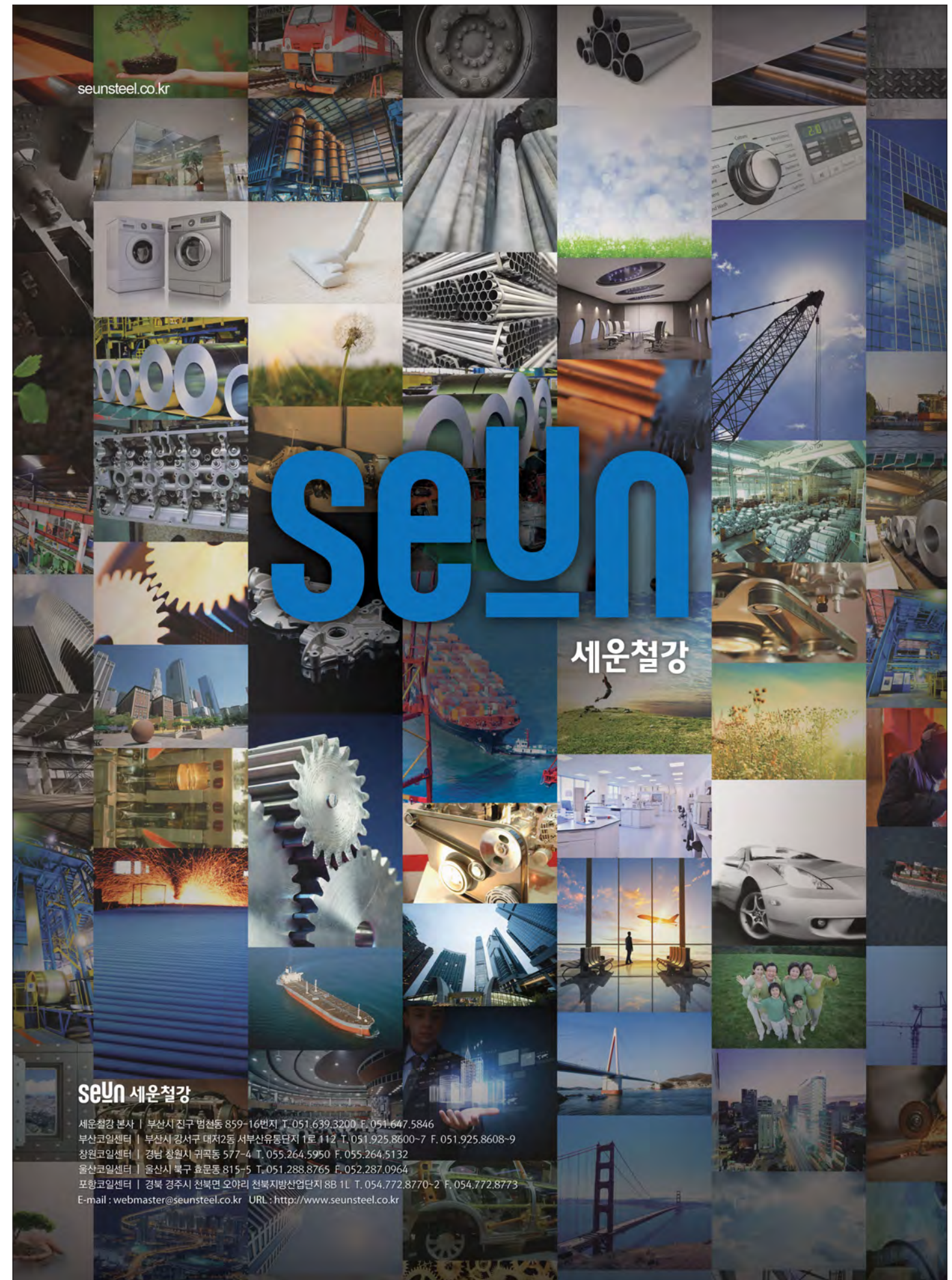
www.hyosan-dvp.co.kr



기본을 지켜 신뢰를 세우고,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Building Trust Through Integrity,
Creating a Future of Lasting Value.

미래를 향한 도전, 안전을 향한 약속.
우리는 안전과 품질이라는 변함없는 기준 위에 고객의 신뢰를 쌓고,
전문 기술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공간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전의 영역을 넓혀가며,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건설기업으로서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seun 세운철강

세운철강 본사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59-16번지 T. 051.639.3200 F. 051.647.5846
부산코일센터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 1로 112 T. 051.925.8600-7 F. 051.925.8608-9
창원코일센터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77-4 T. 055.264.5950 F. 055.264.5132
울산코일센터 |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5-5 T. 051.288.8765 F. 052.287.0964
포항코일센터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천북지방산업단지 8B 1L T. 054.772.8770-2 F. 054.772.8773
E-mail : webmaster@seunsteel.co.kr URL : http://www.seunsteel.co.k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